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④

僧云 如何保任 師云 一翳在眼
승운 여하보림 사운 일예재안
空花亂墜 其僧 言下有省
공화난추 기승 언하유성
上來所擧古聖 入道因緣 明白簡易
상래소거고성 입도인연 명백간이
不妨省力 因此公案 若有信解處
불방성력 인차공안 약유신해처
卽與古聖 把手共行
즉여고성 파수공행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보림(保任:깨달은 경지를 잘 보호하며 닦아가는 것)해야 합니까.'
화상이 말했다.
'하나의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허공의 꽃(空花:눈병이 생기면 때로는 아무 것도 없는 허공에 꽃무늬 같은 헛것이 보인다)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그 스님은 이 말에 곧 깨달음이 있었다.

口談眞理 心生退屈 返墮無分之失者
구담진리 심생퇴굴 반타무분지실자
皆汝所疑 學道而不知先後
개여소의 학도이부지선후
說理而不分本末者 是名邪見
설리이불분본말자 시명사견
不名修學 非唯自誤 兼亦誤他
불명수학 비유자오 겸역오타
其可不愼歟
기가불신여
夫入道多門 以要言之
부입도다문 이요언지
不出頓悟漸修兩門耳 雖曰頓悟頓修
불출돈오점수양문이 수왈돈오돈수
是最上根機得入也 若推過去 已是
시최상근기득입야 약추과거 이시
多生 依悟而修 漸熏而來 至於今生
다생 의오이수 점훈이래 지어금생
聞卽發悟 一時頓畢 以實而論
문즉발오 일시돈필 이실이논
是亦先悟後修之機也 則而此
시역선오후수지기야 즉이차

대답하다. '그대는 함부로 미친소리를 하지 말라.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요즘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은 포기상태여서 도리어 분수에 없다는 잘못(無分之失: 중생으로서는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없다는 착각)에 떨어진 자들은 다 그대가 의심하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본말(本末)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를 일컬어 사견(邪見)이라 하지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는 자신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겸하여 남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 되겠는가. 대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가지 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돈오와 점수는 최상의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를 미루어보면 이미 여러 생애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차츰 익혀왔으므로 금생에 이르러 진리를 들으면 즉시 깨닫게 되어 일시에 모든 것을 끝낸다. 하지만 사실 이것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근기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입으로만 진리 말하고 사견에 빠지면 자신도 그르치고 남도 잘못되게 한다

위에서 말한 옛성현이 도에 들어간 이야기가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로움을 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안(公案:즉 공부의 규범이 되는 것)을 의지해서 믿음과 이해가 있게 되면 바로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問汝言見性 若眞見性 卽是聖人
문여언견성 약진견성 즉시성인
應現神通變化 與人有殊
응현신통변화 여인유수
何故今時修心之輩 無有一人
하고금시수심지배 무유일인
發現神通 變化耶
발현신통 변화야

물었다. '스님은 성품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만일 참으로 성품을 보았다면 바로 성인이시라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答汝不得輕發狂言 不分邪正
답여부득경발광언 불분사정
是爲迷倒之人 今是學道之人
시위미도지인 금시학도지인

대답하다. '그대는 함부로 미친소리를 하지 말라.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요즘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은 포기상태여서 도리어 분수에 없다는 잘못(無分之失: 중생으로서는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없다는 착각)에 떨어진 자들은 다 그대가 의심하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본말(本末)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를 일컬어 사견(邪見)이라 하지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는 자신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겸하여 남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 되겠는가. 대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가지 문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돈오와 점수는 최상의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를 미루어보면 이미 여러 생애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차츰 익혀왔으므로 금생에 이르러 진리를 들으면 즉시 깨닫게 되어 일시에 모든 것을 끝낸다. 하지만 사실 이것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근기이다.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창고는 물질로

등운스님 〈강릉 보광사 조실〉

요즘 날씨가 덥다보니 절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36년간 한적한 이곳 대관령 토굴에서 지내다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불교의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는 지불범(知不凡)을 중요시 합니다. 지불범은 '알면서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스스로 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때문에 불교내부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님네들이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를 쓸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대로 실천을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불제자는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돼요. 불제자라고 자처하려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만큼은 어떤일이 있어도 믿어야 해요. 믿음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꾸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확의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법 만나기도 백천만겁 난조우지요. 불시은이 너무 크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처님의 바른법을 실천하기 위해 초발심의 자세로 항상 정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부처님 말씀에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지혜를 깨쳐 살아가야 함을 일깨운 것이지요.

신창원 사건등 여러 제반의 사회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불평등에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러니 모두가 공업중생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끝납니다. 한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순수하고 바른 부처님의 마음을 찾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크게 하던 우주의 진리를 보게 되지만 마음을 작게 하면 바늘구멍만도 못하게돼 삶을 그르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18세때 월정사에서 만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출가동기는 월정사에서 30여개 말사당 한명의 학생을 추천하여 공부시켜줬는데 다행히 삼화사 종비생으로 뽑히게 된것이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기 위한 생각으로 왔지만 차츰 불교에 대해 알게 되니 신심이 절로 나 그곳에서 7년간 대교과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원에서는 불교를 내과로 하고 외과로 일본어 수학 역사등을 배웠습니다. 은사이신 만운스님은 항상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을 하셨지요. 저에게도 출가사문은 항상 검소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강원시절에는 어린스님들이 모여 있다보니 가끔 사고도 많이 냈지요. 월정사 위에 지장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이 있었는데 어느날 기제사를 올리고 시루떡을 잠시 밖에 놔둔 것을 학인들이 들고와 버렸지요. 거기에다 고추장을 담아둔 단지까지 들고 왔는데 가져와보니 걸레가 들어있지 뭡니까. 그때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도 이제는 거의 입적하고 원주 국형사의 석우스님과 삼척 감로사 이봉섭스님이 전부예요.

당시 월정사 주지 이종옥스님은 퇴락한 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요. 가장먼저 산판해서 불사하여 사찰을 재건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을 재건했지요. 월정사를 불가의 종가라며 중창복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주였던 김용호거사의 후원으로 인재불사를 위해 강원을 일으켜 세웠지요. 스님은 안으로 구도의 열정을 불사르고 밖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지요.

이종옥스님은 이외에도 평창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지역불자들과 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던 때였습니다. 생산불교를 위해 버스회사인 강원여객을 설립하기도 했어요. 이종옥스님의 노력으로 월정사는 대중스님이 50명 학인스님들이 20명에 이르렀지요.

강원을 마치고 상원사 선원에 갔습니다. 상원사에는 당시 선지식이었던 방한암스님이 조실로 계셨지요. 당시 조계종 총본산 종정으로 추대된 스님은 1926년부터 1951년 생사가 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좌탈입망에 들때까지 산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1년동안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동안거와 하안거를 마쳤지요. 한암스님은 계율을 얼마나 잘 지켰던지 수좌들의 좌표였습니다. 그때 세수가 70이 다됐는데 오후불식에 안빠지시고 새벽 3시면 빠짐없이 일어나 예불과 대중공양에 참석하셨지요.

한암스님은 틀니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틀니를 청소하시며 틀니에 끼어있던 음식이 나오면 물로 씻어내고 그 물을 드셨을 정도였어요. 한암스님은 항상 공부하는 수좌들에게 시주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한암스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불은(佛恩)이 얼마나 지중한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부모는 7생이지만 사승은 누겁이어서 의가 깊고 은혜가 중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는 잘 모릅니다. 계를 받았으면서 잠깐이라도 뜻을 잊어버리면 오랜동안

약력
- 1915년 강원도 명주 生
- 1932년 월정사에서 만운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7년 월정사강원 대교과 수료
- 1944년 일본 경도 임제학원 수료
- 1954년 명주 보현사 주지
- 1975년 태고종 강원교구 사정원장
- 1983년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 1998년 태고종 승정
- 현 강릉 보광사 주석

"한순간 마음 잘못 다스리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파장 일으키니 방심말고 부처님마음 찾으세요"

1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우리조상 천도발원 후손들의 보은공덕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672-2448

2 奉 일시 : 8월 25일 (음 7월 15일, 수요일) 行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한국불교법륜종 보현정사 ☎ 276-1730

3 奉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8월 25일, 음 7월 15일) 行
조상님 공경하고 어버이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금성산 다보사 ☎ 334-4201

4 ☜ 막대구멍 ☞ 5

부모님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라
사랑하고 연민하심 한결같고 끊임없네
단것은 아기에게 먹이느라 당신은 안잡숫고
쓴것은 삼키면서 찡그린적 한번없네.
— 부모은중경 中 —

◉ 홍보용(1번~3번)
길거리, 절입구
(90Cm×6m)
1장당 40,000원

◉ 장엄용(4번~5번)
법당외벽, 절입구
(90Cm×2m)
1장당 30,000원

어머님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의 높은 은혜 하늘에다 비기리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아무리 크다해도
어버이의 큰 은혜에 견줄 수 없어라.
— 부모은중경 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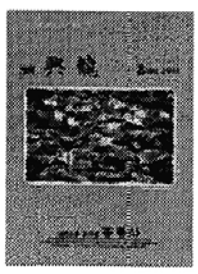
불교서원 전화 (062)226-3056, 전송 (062)226-5056

어버이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 어른되니 그 분 이미 세상에 없네.

8月 맞춤사보 (특집) 백중영가천도법회

우리 절 편집실처럼 스님의 뜻을 헤아려, 필수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보(월간, 격월간, 계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신도교육과 포교, 행사안내와 신도사업체 홍보, 사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등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사보제작 5년 역사를 지닌 불교서원과 만나십시오.



8월호내용 특집(1)백중(우란분절)과 영가천도
특집(2)불교에서 바라본 효도와 조상공경
특집(3)조상천도기도로 다시 찾은 가정의 평화

사보(1) 20쪽, 표지칼라
기본 (100부) 10만원, 추가 100부당 4만5천~5만5천원
사보(2) 8쪽, 흑백인쇄
기본(100부) 6만원, 추가 100부당 2만8천~3만5천원
※사찰 전용지면(4쪽)에 스님설법, 행사안내, 신도원고, 신도사업체 후원광고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개량형 영가위패(1장에 15영가 위패)
각종 현수막(행사안내,부처님 말씀 등),책상용 명패(주지,사무장)
상패(임명패,감사패), 상장, 수계증, 사찰기, 조의기 등도
주문제작, 통신판매 합니다.

※주문입금계좌(농협 613-01-092143 예금주 : 선우), 입금시 사찰명을 꼭 기입바랍니다.

영가를 천도드릴 때
염송하는 각종 "왕생기도발원문집"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왕생기도와 천도재

(구)「무상법문집」 증보판 4×6배판, 값 3,500원

왜 그리고 어떻게 천도기도를 드려야 하며
실제로 기도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각종 왕생기도문(자신의 앞길을 닦는 사람이 올리는 극락왕생기도, 상가조문시, 낙태아천도재, 49재 등 천도재에 올리는 왕생기도)과 영가천도의 바른 이해와 인연공덕, 그리고 천도기도체험기는 사찰에서 필요한 왕생기도 신행지침서(백중, 49재 법공양판)가 될 것입니다.

※법공양을 원하시는 분은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에서 법공양판 제작시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불교서원은 불교서점(전화주문 통신판매, 법공양 할인판매)와 불교전문인쇄, 출판사(7년 역사)입니다

불교서원 전화 (062)226-3056 전송 (062)226-5056